두려움도 선택이고 믿음이다

(시편 128:1~6)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두려움도 선택이고 믿음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두려움도 선택이고 믿음이다'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성경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두려워함과 떨림이 없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랬다 두려워하랬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절구절마다 맥락을 살피면서 따져보아야겠습니다만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의 의미를 종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려움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두려움의 대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앞서 보았던 서신서에서 이야기되었던 두려움에 대한 모든 말씀이 정리됩니다. 이 세상 안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세상 밖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그 자체를 없애려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29~31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선택이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올바르게 선택된 두려움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밑바닥에서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함과 범사에 감사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없애거나 넘어서거나 억눌러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향한 두려움인가를 선택함으로써 이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시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선택과 연결시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지혜의 시로 분류되는 시 중의 하나로 구분됨을 통해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시’란 권고하는 의도를 담은 시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의 시는 대부분이 포로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생의 깊은 실패를 맛본 사람에게서 지혜가 생기듯이, 나라가 망해 포로생활을 겪은 이들이 갖게 된 영적이고 신앙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시들은 바로 이렇게 뼈에 새겨지도록 처절한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권고하려고 지어진 시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시 또한 역사적으로 포로귀환 뒤에 지어진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받는 복치고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도 수고한대로 얻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나 LG의 직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든 않든 일한대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복이라고는 말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복이 이런 것에 그친다면 굳이 여호와를 경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복의 예시는 밋밋합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영광 정도는 되어야 여호와를 경외할 의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밋밋한 표현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1절에서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敬畏)'라는 단어는 공경할 경(敬)과 두려워할 외(畏)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은 모두 이 경외를 'fear'로 썼는데 '공포, 두려움, 무서움'을 뜻하고 또한 동사로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워함이 총칼로 폭정을 일삼는 폭군에게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구타하는 가장에게 느끼는 감정과도 다를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근원은 채워지지 않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거리가 없다고 느낄 때에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울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마음의 공백이 채워져서 만족하고 기쁨을 느낄 때에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낍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채울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경외라는 말이 포함하는 두려움의 정의는, 어떤 특정한 존재가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될 때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공포로서의 두려움이란 어떤 특정한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의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채울 것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어지면 가장 두려운 대상이 무엇입니까?
열애중인 남녀에게는 애인일 것입니다. 금슬 좋은 부부에게는 배우자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는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사업체나 돈일 것입니다. 은퇴하여 연금생활을 하는 부부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자녀가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굳이 경외라는 단어로 수식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경외하는 대상들입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살아가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경외의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죽이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던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아들을 죽이고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두려운 일인가를 저울질하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는 것을 더 두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표현은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오늘 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잃는 것보다도 하나님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들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마음을 채울 수 없는지에 대해 선택한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는 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이것을 여호와 경외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러나 이 구절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다른 예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의 하반부를 보면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30절의 하반부를 보면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제로 삼아 다시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농사짓던 땅도 사라진 후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복지였고 제비뽑아 나누었던 땅이었지만 그 기업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땅들은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을 쌓아서 방어를 한다지만 변방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방민족과 갈등을 겪고 약탈의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이것이 내 입에 들어오리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두려워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힘센 이방민족들이 와서 다 훔쳐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수확물을 약탈당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약탈당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일한대로 먹으리라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이 주는 교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잃는 두려움을 겪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했습니다. 수확할 농산물이 없음을 두려워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없음을 두려워할 것인지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야 말로 최선의 방어가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이유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구했다는 것은 곧 풍요와 다산이 없어짐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동안에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없는 상황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돈이나 건강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두려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미 돈이나 건강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여기는 것은 그 만큼 돈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할 때에는 건강의 힘을 그만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대신에 돈이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3절에서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새 가지가 나온 것을 말합니다. 즉 신선함과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가족들이 둘러앉은 밥상모습은 행복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려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포로생활을 한 경험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지면 제일 먼저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변방에 살고 있었던 귀환자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앞서 수확물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치안도 부재하고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방민족에게 대항할 수 없어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아내와 자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빼앗김으로 인해 행복을 잃는다고 여기는 것이 경외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경외하며 산 결과가 결국은 나라와 가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잃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는 탓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대상을 여호와로 삼아야합니다. 선민들의 삶의 형편이 지금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언제 가족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나 자녀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고 믿을 때에 여호와 경외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곡식의 수확물과 가족을 굳건히 지키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 말로 최선의 방어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시편 127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벌어놓은 돈을 약탈당할까 두려워하고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잃은 결과로 수확물도 가족도 다 빼앗긴 경험을 되살려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시온은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호와 경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지 않으면 경외가 불가능한 이유는 유전죄 때문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속에 있는 유전죄입니다. 이 유전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로 채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

에 잡히는 가치들로 마음을 채우면 만족과 기쁨이 생기리라고 믿으려는 경향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생겨납니다. 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여겨지는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순간 돈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의 능력도 믿고 자녀의 형통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행복과 만족의 이유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이 내 마음을 채워주고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전죄의 체질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좋다고 여겨질 때에 얼른 성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만족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살기 때문에 축복이고 감사가 됩니다. 자녀를 보며 좋아하던 마음을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고백합니다. 자녀가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와 관계할 때에 감사가 생겨납니다. 자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은 자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대상을 경외합니다. 없어지면 큰일 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하나님을 잃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경외하려는 나를 끊임없이 상번제의 번제단에서 어린양과 함께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조금의 틈만 주면 파고들어서 나의 마음을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도록 만듭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영원하기에 영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 스스로를 허락하시는 유일한 지점으로 선택하신 장소가,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으며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마음을 둘 때에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죽는 자리입니다.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해 죽

는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선택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달려오실 뿐만 아니라, 부활시키셔서 당신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을 장갑삼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때에 자연히 율법과 계명들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선택입니다. 유전죄를 가진 우리의 체질에서는 두려움의 감정은 은혜입니다. 다만 올바른 두려움의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올바른 믿음이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죄를 두려워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올바른 두려움의 대상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